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 統一經濟

1999. 6 통권 제54호

現代經濟研究院

# 統一經濟

6  
1999  
제54호

편집자의 글  
차관급회담으로 조성되는 새로운 분위기.....2

포커스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5대 과제 • 김달중.....3

특 집  
NGO의 대북 활동 평가와 남북 교류 협력 영향  
NGO의 대북 활동 현황과 평가 • 조한범.....10  
NGO의 대북 활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 조성범.....17  
NGO의 대북 활동이 남북 교류 협력에 미치는 영향 • 유기홍.....23

경험정보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Ⅳ): 토지 관리 • 황동언.....30

논 단  
국내 은행의 대북 진출 기업 지원 방안 • 김명식.....42  
90년대 북한 경제 정책 변화의 제한성 • 김근식.....54  
김정일시대의 대외 개방 정책 촉진 및 억제 요인 • 신희선.....66

북한경제  
최근 북한의 농업 정책 변화와 식량 수급 전망 • 김운근.....85

해외시각  
햇볕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시사점 • Scott Snyder.....98

인물초점  
독일 통일의 주역들(Ⅱ): 독일경제인연합회장 틸 넥커(Tyll Necker) • 박상봉.....104

자료  
1998년도 북한의 대외 무역 동향.....111

통 권 제54호  
등록번호 라-8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9년 6월 10일  
발 행 인 김중중  
편 집 인 정순원  
편집위원 김정규 유병규  
김신덕 김희성  
박태일 황동언  
편집주간 홍순직  
제작주간 심재철  
편집교열 장은숙  
발 행 처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24-4114  
F A X (02)730-1770  
인 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제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차관급회담으로 조성되는 새로운 분위기

**최** 근 남북한 문제와 관련, 새로운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다. 지난 5월 하순에는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에 대한 미국의 현장 조사가 성공리에 이루어진 데 이어, 미국의 페리 조정관이 평양의 환대 속에 북한을 방문하였다. 또한 21일에는 이산 가족 문제와 대북 비료 지원 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는 남북한차관급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년 2개월만에 남북한차관급회담이 재개되는 셈인데, 이는 우리 정부의 신축적인 상호주의 원칙 적용과 한반도에서의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남북한간의 적대성과 불신을 해소하여 평화 안정 관계를 정착시키려는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5대 과제”를 포커스로 다루어보았다. 여기서는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방법, 즉 대통령이 제시한 5대 과제의 의미와 내용, 이를 위한 국제협력 체제의 구축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특집으로는 최근 세계적으로 NGO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를 고려하여, “NGO의 대북 활동 평가와 남북 교류 협력 영향”이란 제목으로 향후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NGO 역할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 그리고 NGO의 대북 활동이 남북 교류 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망해보았다.

논단에서는 햇볕 정책과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점차 대규모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있어서, 독일의 사례를 들어 “국내 은행의 대북 진출 기업 지원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국내 은행들이 자금 결제 기반을 구축하고,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도모하고 기금의 설립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에 있어서 제한적 요소들, 그리고 대외 개방 정책의 촉진 및 억제 요인들을 논단으로 다루어 분석하였다.

한편, 북한 경제에서는 “최근 북한의 농업 정책 변화와 식량 수급 전망”의 제목으로 1999년 농업 정책 방향과 비료 사정 악화에 따른 식량 수급 사정을 조망해보았다. 이외에도 해외 시각에서는 “햇볕 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남한의 대북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인물 초점에서는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틸 넥커 독일 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다루었다.

5월 들어 싹트운,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분위기가 6월의 차관급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산 가족 재회 사업은 정치와 경제, 이념적 차이를 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최소한의 권리일 뿐 아니라, 이산 가족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소중한 절박한 과제이다. 아무쪼록 차관급회담이 공식적인 당국자회담과 정상회담으로 확대·발전되어, 21세기에는 한반도가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에서 평화의 역사적 상징 장소로 거듭나기를 갈망해본다.

1999년 6월  
편집자